

대전지역의 대학도서관 상호이용 협력활동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University Library Cooperation in Daejeon

신 동 민(Dong-Min Shin)**

목 차

- | | |
|-------------------------------------|----------------------------------|
| 1. 서론 | 3. 지역대학 도서관 협력활동(상호대차) 및 이용현황 분석 |
| 2. 이론적 배경 | 3.1 연구 설계 |
| 2.1 도서관 협력활동의 개념 및 국내외의 도서관 협력활동 내용 | 3.2 조사 분석 |
| 2.2 선행연구 | 4. 결론 |

초 록

이 연구의 목적은 대학도서관의 상호이용 협력활동에 대한 이용자들의 이용 현황과 사서의 인식을 조사하여,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질문지의 조사문항은 인구 배경적 특성과 장서만족도, 상호이용 협력활동의 인지도, 이용경험 및 활용도, 개선요구사항 등으로 구성하였다. 분석방법으로는 가설검정과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이용자는 자관의 장서에 대해 만족도가 50% 미만으로 낮았고, 도서관 상호이용 협력활동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단, 그 서비스의 필요성에 대해 높은 비율로 동의하였다. 한편 사서는 도서관 상호이용을 위한 홍보나 안내가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and analyze the user's using status and the perception of librarian gathered through a survey of university library cooperation, in order to address the problem and to suggest a solution for it. The questionnaires are consisted of population characteristics, a satisfaction of the library information material, awareness of the library cooperative activities, user's experiences and application degree of them, and the needs for the improvement of the activities. ANOVA, t-test and chi-square test were used for examination of hypothesis in the study. In conclusion, users' satisfaction of information materials having in their library was lower than 50% and they were not aware of library cooperative activities. However, they agreed on the need of the service with the high percentage. Librarians were aware that the lack of information materials which pointed out by users, and recognized that they have not given them enough informations as well as guidance for the library cooperation.

키워드: 도서관 상호협력, 상호대차, 도서관 협동, 대학도서관, 도서관협력활동기능

Inter-library Loan, Library Cooperation, University Library, Library Network Function

* 본 연구는 한남대학교 2006년도 교비학술연구비에 의해 연구되었음.

** 한남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domishin@hannam.ac.kr)

논문접수일자 2007년 5월 27일

게재확정일자 2007년 6월 20일

1. 서론

최근의 대학도서관 경영 환경은 전자도서관의 개념을 넘어서 유비쿼터스 도서관 체계로 그리고 하이브리드 도서관의 개념으로 발전하는 단계에 있다. 이러한 도서관 경영 환경의 변화에 따라 그동안 도서관들이 도서관의 소장 자료 자체와 자료 이용과 유통의 전자화에 치중하는 경영전략의 추진과정에서 부분적으로 소홀히 해 왔던 이용자 서비스에 좀 더 비중을 높여야 한다. 이것은 도서관의 최종 목표가 소위 3D(3D)이라 일컫는 최적의 정보를 적시에 정보가 필요한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것이라도 볼 때, 정보이용과 관련된 물리적 환경의 개선과 이용자의 실질적 요구를 파악하여 개선하는 시점이라 할 수 있다.

도서관 경영 자원 중에서 자료자원은 도서관의 존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3요소 중 하나로써, 관중 별 단위도서관의 이용자(실제적, 잠재적)의 정보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봉사 대상자에게 제공되어야 하는 정보 자료의 망라적 수집은 필수적이다. 단, 관중에 관계없이 어느 도서관이든 이용자 봉사를 위해 완벽한 장서 구성을 할 수는 없다. 그 이유로서는 생산 자료의 급증, 서지접근의 불완전성으로 인한 완전한 생산정보 파악 불가, 공간의 관리 운영상의 문제,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예산의 부족을 들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현재와 같은 전자도서관 환경에서는 전자정보원에 대한 효과적인 정보접근 환경의 구축과 서비스 제공 등도 도서관간 협력활동에서는 필수적 요소라 하겠다. 따라서, 이러한 불완전한 장서 구성으로 인해서 각 도서관은 이용자 요구 충족

을 위한 도서관간 상호 협력활동을 통해 부족한 장서를 포함한 자원의 공유를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도서관과 사서의 도서관간 상호 협력활동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적극적인 홍보나 안내부족으로 인하여 이용자의 상호 협력활동 이용도가 극히 저조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도서관들의 소극적 활동, 특히 이용자 수가 가장 많은 대학도서관들의 이용자 봉사활동에 대해 실제 이용자들의 도서관 봉사활동에 대한 생각을 확인하여 도서관 경영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대학도서관의 여러 이용자 봉사활동 중 장서부족에 따른 장서개념의 확대를 위한 도서관간 상호 협력활동의 운영에 대해 조사하여 이용자에게 실제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대안 및 개선 방안을 도출한다.

연구의 주요 내용으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대학도서관의 상호 협력활동의 내용을 중심으로 이용자들의 이용 현황과 협력활동을 담당하고 있는 사서들의 인식 및 문제점을 확인하며, 이러한 문제점 해결을 위한 이용자와 담당 사서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즉, 실제 이용자들이 자관 장서가 이용하기에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을 것이라는 가정하에, 부족한 장서를 보완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타 도서관 장서활용에 대한 인지도 및 활용 정도를 파악하고, 자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도서관간 상호이용 협력활동에 대한 홍보 또는 안내 활동에 대한 인식도와 불만사항을 확인하고자 한다. 또한 동일한 내용으로 도서관간 상호이용 협력활동을 담당하는 사서들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이용자와 사서의 인지 또는 인식

의 차이를 확인하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도서관 경영에 반영할 내용을 제시한다.

이러한 연구는 그동안 우리나라 도서관들이 도서관 경영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도서관의 전자화 및 정보이용 환경의 개선에 치중한 면이 많은 것을 볼 때, 이제는 실제 이용자들의 정보이용에 대한 정확한 현황과 불만사항을 확인하고, 확인된 불만사항과 개선 요구사항들을 이용자를 위한 봉사활동에 반영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도서관 경영에 대한 철학을 본래의 도서관 목표인 이용자 중심으로 초점을 맞추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연구의 범위로서, 문헌적 근거를 통해 파악된 현행 조사 대상 도서관 협력활동의 실제 수행내용을 중심으로 하여 표본 도서관의 사서와 이용자를 대상으로 조사·분석한다. 표본 도서관은 이용자(학부학생)들이 off-line 도서관을 물리적으로 실제적 이용이 가능한 지역의 도서관들로서 도서관 상호이용 협약이 이루어진 대전지역의 도서관들로 한정한다.

연구의 방법으로는 이론적 배경과 조사항목 선정에 위한 문헌적 연구방법과 연구문제 해결을 위한 설문조사 방법을 병행 실시하며, 설문조사는 대학도서관간 협약에 의해 도서관 상호이용 협력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협의체 중 지역협의체를 표본으로 선정하여 실시하고자 한다. 설문조사의 분석을 위해서는 SPSS 통계 패키지를 이용하여 통계적 유의성 분석을 하고자 한다. 단, 도서관간 상호협력활동 담당 사서에 대한 통계는 표본도서관을 일정 지역에 한정하였으므로 그 수가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에 불충분 하므로 기술통계를 위주로 하고자

한다.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본 연구가 전국적으로 산재해 있는 지역대학 협의회 등의 협력활동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각각의 협력활동들의 활동내용과 이용 환경이 상이하여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에 제한될 있을 수 있다.

2. 이론적 배경

2.1 도서관 협력활동의 개념 및 국내외 도서관 협력활동 내용

2.1.1 개념

도서관 협력활동이라는 용어는 두 개 이상의 도서관이 도서관의 운영이나 자원의 이용 또는 이용자를 위한 정보봉사를 촉진, 증진, 향상시키기 위해 상호호혜의 원칙에 의거하여 협력하는 활동의 개념으로 사용된다. 도서관의 협력 활동에 대한 용어는 도서관 협동, 도서관 콘소시아, 도서관 네트워크, 도서관 망(이두영 1987), 도서관 협력망(국립중앙도서관 2005), 그리고 도서관 상호협력 네트워크(한국사립대학교 도서관협의회 2000) 등 다양하게 정의하고 있다. 이들은 모두 도서관 자원의 공동이용을 목적으로 도서관들을 네트워크로 연결하여 서로의 공통적 이익을 추구하는 하나의 협동체제를 의미하는 것이다(이두영 1987)라고 하였다. 여기서 네트워크로 연결한다는 것은 컴퓨터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을 가능하게 하는 개념을 뜻하며, 협동체제 라는 용어와 대치시켜 시대적인 감각(디지털 시대)을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나, 이러한 협력활동은 반드시 컴퓨터를 수단

으로 이용해야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러한 협력활동의 범위 또는 내용으로서는 학자에 따라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는데, 대부분 자료수집, 편목, 공동보존 및 보관, 참고봉사, 상호대차, 등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출판업무, 공동연구, 직원교육 등을 기능에 제시(Ruth F. Patrick 1972)하기도 하였으며, 마이크로필름 제작과 같은 매체제작 기능을 포함하였다(James G. Williams and Roger Flynn 1979). 이런 매체 제작과 같은 협력 활동은 현재와 같은 디지털 시대에도 영구보존의 필요성이 있는 일부 자료 보존과 같은 이유에서도 고려해 볼만한 기능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기능을 종합해 보면 도서관의 모든 기능(수서, 편목, 열람·대출, 참고봉사, 연속간행물 관리, 기획경영)이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있다(이두영 1985). 따라서 도서관 상호이용 협력활동은 도서관자원(인력, 자료, 시설, 재화, 기술, 정보)의 공동활용을 위한 회원도서관간 상호 보완적, 호혜적 협력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2.1.2 국내의 도서관 협력활동 내용

도서관 협력활동의 내용은 이론적 근거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도서관의 자원, 즉 물질, 인력, 예산(비용) 기술, 정보 등이 모두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내용 중 현재 우리나라 도서관에서 수행하는 주요 협력활동을 다음과 같이 열거할 수 있다.

첫째, 공공도서관의 경우, 분담수서, 상호대차, 공동보존, 문화프로그램협력 및 공동홍보, 관외대출증 공유 및 복사카드 공유, 도서관운영 관련 협정(협약) 체결, 외국도서관과 교류 등의 업무 및 이용자 봉사서비스를 위한 협력활동을

계획 또는 실행하고 있다(국립중앙 2006).

둘째, 대학 도서관의 경우 상호대차(원문복사, 자료 대출), 공동수서(단행본, 연속간행물), 공동편목, DB공유, 전국규모 학술정보 네트워크 참여 등을 중심으로 협력활동을 수행하고 있는데, 전국규모로서는 국립대학도서관협의회, 한국사립대학도서관협의회, 학술지공동활용협의회(KORSA), 한국신학도서관협의회, 한국의학도서관협의회(전문도서관에서 소개), KESLI 등이다. 지역대학 단위로 구성된 협의체로는 서울 및 경기지역의 '신촌지역 4개 대학 도서관협의회'를 비롯한 5개 협의체, 충청 및 강원지역으로는 '대전·충남지역대학협의회'를 비롯한 4개 협의체, 영남지역으로는 '대구경북도서관협의회'를 비롯한 8개 협의체, 호남 및 제주지역으로는 '전북지역대학 도서관협의회'를 비롯한 3개 협의체 등이 '협의회', '협정', '협약'의 형태를 통해 도서관자료 및 자원의 공동 활용을 추구하고 있다(한국사립대학교 도서관협의회 2000).

셋째, 전문도서관의 경우, 한국원자력연구원(기술정보과, 2007년 현재 협의회 회장기관)을 비롯한 56개의 우리나라 주요 연구기관 정보관리부서로 구성된 '과학기술정보관리협의회'의 상호협력활동 협의체가 있다. 이 협의체의 주요 활동 내용으로는 소장 장서의 상호대차와 원문복사 제공, Union DB 구축 협력, 신착자료 상호 제공, 학술세미나 및 워크숍 개최 등을 통한 회원들의 전문성 증진 등을 추구하고 있다(<http://www.stima.or.kr/> 2007년 6월 현재). 또한 의학전문 도서관들의 협력 활동으로서, 우리나라 의학 분야의 관련 기관 즉, 의과대학 도서관, 병·의원 도서관(실), 제약회사, 학술

정보 기관을 비롯하여 연구기관 등 177개 기관으로 구성된 '한국의학도서관협의회'가 있다. 주요 활동 내용으로는 회원기관 의학사서들의 전문성 확보와 능력증진을 위한 연구·교육활동, 학술대회 및 워크숍 개최 운영, 의학사서 자격인증 관리, 협회지 발간 등을 실시하며, 정보자료의 상호 이용을 위한 상호대차(문헌복사), 복본 교환 등 실질적인 호혜의 원칙에 입각한 협력활동을 수행하고 있다(<http://kmla.or.kr/>, 2007년 6월 현재).

2.2 선행연구

본 연구는 우리나라 대학도서관의 도서관 협력활동의 운영사례를 중심으로 조사 분석 하는 것이다. 즉, 이용자의 이용현황에 대한 조사 분석을 통한 문제 발견과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주로 국내의 연구 사례를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우리나라 도서관 협력활동에 관한 초기 연구는 정낙춘(1972)의 신촌지역 3개 대학(서강, 연세, 이화 대학교) 도서관의 협력활동을 위한 연구이다. 그는 현행 대학도서관간 협력활동을 확대할 필요성을 제시하고, 그 내용으로 기본기입카드 교환, 협동수서 등을 제시하였다. 그 후, 김진용(1976)이 우리나라 대학도서관의 상호대차 운영 실태를 조사·분석하였다. 그 연구에서는 대학도서관의 운영 실태를 비롯하여 상호대차에 대한 인식도(이용자 및 사서), 이용지도(안내)에 관한 것 등이었다. 조사 대상 70개의 4년제 대학교 중 42개교의 응답을 분석한 결과에서 사서의 38.1%가 이런 봉사에 대해 모르고 있던 것으로 파악되어서 대학도서관들

의 이용자 봉사에 대한 인식이 미흡한 시기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1980년대 초에 배순자(1983)의 국제도서관 상호대차에 관한 연구가 있었고, 조수현(1991)의 외국학술잡지 종합목록 발간에 따른 상호협력 대책에서는 주로 문헌복사에 관한 협력활동을 연구하였다. 김창근(1994)은 도서관 상호협력활동의 효율을 결정하는 요인을 밝히기 위한 연구에서, 각 협회회의 현황과 활동 내용을 조사하여 우리나라 도서관 상호 협력활동의 개요를 알 수 있게 하였다. 최흥식(1994)은 의학도서관 상호대차업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한 자동화 시스템의 설계를 통해 의학전문사서의 전문성 활용을 확대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였는데, 자동화로 인한 업무의 효율성뿐만 아니라 자료의 보존성과 활용성에서 유용하다는 것을 밝혔다. 홍기선(1995)은 상호대차에 의한 반복적 문헌복사의 사례를 들어 단위도서관의 구독잡지 선정에 대한 권고를 하였고, 특히 협동수서에 대한 모델을 제시하였다. 이경민(1997)은 우리나라는 외국에 비해 아직 상호대차 활동이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고 전제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연구로서 대학도서관의 상호대차 활성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구체적으로 밝히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 결과로서 사서의 수가 많고 전문성이 있는 담당자가 있을 때, 팩시밀리나 PC 등의 기기를 사용할 때 상호대차가 활발하며, 정기간행물의 종수도 영향요인이라고 밝히고 있다.

한국사립대학교 도서관협의회(2000)에서 실시한 조사 분석에서는 전국의 4년제 사립대학을 대상으로 도서관 상호협력 네트워크 현황, 협정(협약) 체결현황 등과 협력활동의 내용인 분담수서, 분담편목, 상호대차, 원문복사서비스,

DB공유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실질적인 도서관 서비스 향상을 도모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여러 협의회에 '무차별적'으로 가입한 일부 도서관은 이용자를 위한 봉사보다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실시하는 대학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상의 여러 논문 중 김진용(1976)의 논문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도서관협력 활동의 한 기능을 중심으로, 주로 상호대차와 관련된 봉사의 효율성을 추구하거나 시스템의 개선을 위한 요인들을 밝히기 위한 논문들이다. 따라서 이런 연구들과 더불어 실제 이용자가 자관의 장서의 규모와 질에 대해 느끼는 불만정도와 그 요소를 밝히는 연구가 선행되거나 또는 추가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현행 대학도서관 협력활동의 내용에 대한 이용자 및 사서의 인지 및 인식에 대해 분석하여, 도서관에서 일방적으로 계획하고 수행하는 봉사가 아니라 이용자 중심의 봉사를 실현할 수 있도록 근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위에 연구사례에서 제시된 것 중 대학도서관들의 도서관상호이용 협력활동의 내용들에 대한 이용자의 자관에 대한 장서 규모의 만족도, 도서관상호이용 협력활동에 대한 인지 여부와 인식도를 조사하고, 이런 이용자의 인지 및 인식이 사서들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이 연구를 위해 이용자와 사서에게 확인할 내용은 위 연구사례에서 가장 최근에 조사된 '대학도서관 상호협력 네트워크 구축현황 조사 및 분석'(2000)에서 조사된 협력활동 중 이용자와 직접 관련된 상호대차(원문복사, 자료대

출)에 대해 조사하고자 한다.

3. 지역대학 도서관 협력활동(상호대차) 및 이용현황 분석

3.1 연구 설계

본 연구에서는 이용자로부터 자관의 장서만족도와 도서관상호이용 협력활동에 대한 이용현황, 인지 및 인식도 등을 조사하고, 사서에게는 이 협력활동에 대한 이용자의 예상되는 만족도, 인지 및 인식도에 대해 추정하는 정도를 조사하고자 하였다. 이것은 이용자와 봉사제공자인 사서와의 인식의 차이가 있을 것으로 가정하고, 그 차이에 대한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실제 봉사 대상자인 이용자 위주의 봉사가 되도록 근거를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3.1.1 연구가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첫째, 이용자와 사서의 장서 만족도에 관한 가설이다. 세부가설로서,

가설 1 = 자관 장서에 대한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낮을 것(50% 미만)이다.

가설 2 = 자관 장서에 대한 이용자의 실제 만족도와 사서가 예상하는 이용자의 만족도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둘째, 이용자의 집단별로 자관장서에 대한 만족도의 차이에 대한 가설이다. 세부가설로서

가설 3 = 집단(전공계열)별로 자관장서에 대

한 만족도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4 = 집단(대학)별로 자관장서에 대한 만족도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셋째, 도서관 상호이용 협력활동에 대한 인지도 및 이용경험에 관한 가설이다. 세부가설로서

가설 5 = 학년에 따라 도서관 상호이용 협력활동의 인지도가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6 = 학년에 따라 도서관 상호이용 협력활동의 이용경험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7 = 도서관 상호이용 협력활동에 대한 이용자의 인지도와 사서가 보는 예상 인지도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3.1.2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일 표본 및 독립표본 t 검정, 분산분석, 교차분석(카이 제곱 검정)을 실시한다.

조사 방법으로는 설문조사법을 사용하였으며, 조사는 2007년 5월 7일부터 5월 15일까지 실시하였다. 조사 대상은 대학도서관의 이용자들이 상호대차에 의한 자료대출과 off-line 도서관의 이용이 가능한 지역대학의 협의회를 대상으로 하여 대전지역에 소재한 7개 대학¹⁾을 선정하였다. 조사대상의 표집방법은 조사대상 대학의 이용자를 무작위 추출방법으로 선정하였고, 조사 대상자는 각 대학별로 학생 50명씩

선정하여 총 350명의 학생을 선정하였으며, 사서들은 각 대학별로 도서관 상호이용 협력활동을 수행하는 담당자들을 선정하였다. 질문지는 이용자용과 도서관 상호이용 협력활동을 담당하고 있는 사서용으로 구분하였다.

조사 실시에 있어서 이용자용 질문지는 조사원이 직접 표본도서관이 소재한 대학을 방문하여 배포 후 응답자의 질문지 작성 시까지 기다렸다 회수하는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회수율은 질문지 미제출을 제외한 347부가 회수되어 약 99%의 회수율을 보였다. 사서용은 E-mail을 통해 배포 후 회수하였는데, 각 업무 담당자에게 전화로 별도의 협조를 요청하여 7개 대학 모두가 송부하여 100%의 회수율을 보였다.

3.1.3 질문지 구성

이용자용 질문지 구성은 인구 배경적 특성에 관한 2개 항목(독립변인)과 자관 장서의 만족도를 확인하기 위한 4개의 항목(종속변인으로 이용), 원하는 자료가 자관에서 소장하고 있지 않은 자료에 대한 대응 행위 항목(2개 항), 도서관 상호이용 협력활동에 대한 인지 및 인식도 항목, 이용경험 항목, 이용절차 만족도 항목, 주로 이용하는 대학 및 서비스 만족도 항목, 협력활동의 필요성 항목과 추가로 받고 싶은 서비스 항목을 포함한 13개 항목으로 구성하여 총 21개 항목으로 설문문항을 구성하였다.

사서용은 도서관 상호이용 협력활동 업무 담당자의 인구 배경적 특성에 관한 5개 항목, 이용자의 장서만족도에 대한 사서의 예상에 관한

1) 대전·충남지역협회의 회원도서관은 28개이나, 대전지역에 소재한 도서관은 9개이다. 이 중 시 외곽지역에 소재한 대학(중부대학)과 과학기술분야 위주의 장서 구성을 하고 있는 대학(한국과학기술대학)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 하였다.

4개 항목, 도서관 상호이용 서비스 이용실적에 관한 4개의 항목, 협력활동에 대한 홍보에 관한 5개 항목, 향후 협력활동의 운영 및 개선점에 관한 5개의 항목을 포함하여 총 23개 설문문항으로 구성하였다.

3.2 조사 분석

서론에서 밝힌 바와 같이 설문조사의 분석을 위해서 SPSS 10.0 for Windows를 이용하였으며, 가설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을 검정하기 위해 T-test, 분산분석,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가설검정에 필요한 장서만족도는 요인분석을 이용해 장서만족도의 측정항목으로 4개 설문문항을 정의하였다. 측정문항에 대한 신뢰성은 Cronbach's alpha 계수 0.60을 기준으로 검증하였다. 기타의 측정항목은 빈도수에 의한 기술통계를 실시하였다.

3.2.1 가설 검정

1) 가설 1: 자관 장서에 대한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낮을 것(50% 미만)이다.

본 가설의 검정과 관련된 설문문항은 모두 4개 항목으로 전공분야 도서, 학술잡지, 일반 교양도서, 참고도서에 대한 이용자의 만족도를 물었다. 이 측정문항들을 하나의 장서만족도라는 측정 요인으로 검정하기 위해서 이 문항들에 대한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설문문항에 대한 요인분석결과, 고유치가 1.0을 상회하는 요인(고유값 2.344)으로 1개의 성분요인이 추출되었으며, 이들의 총분산에 대한 설명력은 58.6%로 나타났다. 그리고 직각 회전법인 Verimax로 회전하여 1개의 성분요인에 분류된 요인들

에 절대값 0.5이상을 적용결과 본 연구에서 선정된 4개의 설문문항이 모두 포함되었다. 1개의 성분요인을 본 연구에서 '장서 만족도'라고 정의하였다. 또한 요인분석의 결과 추출된 "장서만족도" 측정문항에 대한 신뢰성을 검정한 결과, 본 연구에서 사용된 4개의 측정문항이 Cronbach's alpha 계수 0.60보다 높은 수치를 보였다. 이에 본 연구의 측정문항은 신뢰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상의 정리에 따라 본 가설 1에 대한 검정을 위해 일 표본 t 검정을 실시하였으며 사전 분석으로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1) 사전분석

먼저 이용자들의 장서에 대한 만족도를 계산하여 그것을 이용해 현재 전체 이용자들의 장서 만족도 점수를 알아보았다. 만족도 점수는 4점 척도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된 점수를 사용하였다. 이것의 합산된 점수를 보면 전공 분야 도서는 45.44, 학술잡지는 37.76, 일반교양도서는 58.33, 참고도서는 45.63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측정문항인 이용자들의 장서만족도는 50점 보다 낮은 46.73이 된다. 즉 장서 만족도의 세부 문항에 대한 만족도 점수는 전공 분야 학술잡지가 가장 낮으며 교양도서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과 같이 다중 응답군 정의를 이용한 빈도 분석을 통해서 이용자들의 장서 만족도가 50% 미만일 것이라는 가설 1을 검정해 볼 때, 만족도가 50% 미만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전체 응답자 중 52.3%로 나타났다. 즉 과반수 이상의 이용자가 자관의 장서량이 50%미만으로 소장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 이용자의 자관 장서에 대한 만족도에 대한 빈도 분석

만족도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25% 미만	269	19.4	19.4	19.4
25-50% 미만	455	32.9	32.9	52.3
50-75% 미만	493	35.6	35.6	87.9
75% 이상	167	12.1	12.1	100
합계	1,384	100	100	

(2) 일 표본 T-검정

가설 1을 검정을 위해 일 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이는 단일 표본의 평균에 관한 검정을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장서 만족도가 50미만 인지 여부를 검정하였다.

〈표 2〉와 같이 검정한 결과, 유의 확률(단측) = 0.009 < α = 0.01로 귀무가설인 '장서 만족도 평균은 50점 이상이다'를 기각하고 대립가설인 '장서 만족도 평균은 50점 미만이다'가 채택되었다. 따라서 가설 1은 채택되었다. 이를 각 자료별로 만족도를 보면 다음과 같다. 즉,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용자들 중 자관에 소장되어 있는 전공 도서의 소장 비율이 50%

미만이라고 응답한 응답자가 전체의 53.3%(185명)로서 만족도가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35.7%(124명)의 응답자는 전공도서의 소장 비율이 50-75% 정도라고 응답하여 다른 유형의 자료에 비해 만족도가 높은 이용자가 많음을 알 수 있다.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용자들 중 자관에 소장되어 있는 전공분야 학술잡지의 소장 비율이 50% 미만이라고 응답한 응답자가 전체의 65.6%(227명) 이었다. 이 응답결과는 조사 대상자료 중 학술잡지의 만족도가 가장 낮은 것이다.

〈표 2〉 장서만족도에 대한 일표본 T-검정

구분	검정값 = 2.5					
	t	자유도	유의확률(양측)	평균차	차이의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장서만족도	-2.624	343	.009	-.09811	-.1717	-.0246

〈표 3〉 자관에 소장되어 있는 전공분야 도서에 대한 만족도

만족도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25% 미만	74	21.3	21.3	21.3
25-50% 미만	111	32.0	32.0	53.3
50-75% 미만	124	35.7	35.7	89.0
75% 이상	38	11.0	11.0	100.0
합계	347	100.0	100.0	

50% 미만 만족: 53.3%

50% 이상 만족: 46.7%

〈표 4〉 자관에 소장되어 있는 전공분야 학술잡지에 대한 만족도

만족도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25% 미만	100	28.8	28.9	28.9
25-50% 미만	127	36.6	36.7	65.6
50-75%미만	92	26.5	26.6	92.2
70% 이상	27	7.8	7.8	100.0
합계	346	99.7	100.0	
시스템 결측값	1	.3		
합계	347	100.0		

50% 미만: 65.6% 50% 이상: 34.4%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관에 소장되어 있는 교양도서에 대해서는 65.7%(226명)의 응답자가 자관 소장 비율이 50%이상이라고 응답하여 다른 자료에 비해 가장 만족도가 높은 것임을 알 수 있다.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관에 소장되어 있는 참고도서에 대해서는 55.9%(194명)의 응

답자가 소장 비율이 50%미만이라고 응답하여 전체적으로 만족도가 낮다고 할 수 있다.

위의 빈도표에 의한 빈도분석을 통해 볼 때, 범주형 데이터의 특이한 치우침 없이 비교적 고르게 분포되어 있으므로 위에서 정규분포를 가정한 연속형 데이터 분석기법을 적용하는 것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 하였다.

〈표 5〉 자관에 소장되어 있는 교양도서에 대한 만족도

만족도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25% 미만	37	10.7	10.8	10.8
25-50%미만	81	23.3	23.5	34.3
50-75% 미만	157	45.2	45.6	79.9
75% 이상	69	19.9	20.1	100.0
합계	344	99.1	100.0	
시스템 결측값	3	.9		
합계	347	100.0		

50 % 미만: 34.3% 50% 이상: 65.7%

〈표 6〉 자관에 소장되어 있는 참고도서에 대한 만족도

만족도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25%미만	58	16.7	16.7	16.7
25-50% 미만	136	39.2	39.2	55.9
50-75% 미만	120	34.6	34.6	90.5
75% 이상	33	9.5	9.5	100.0
합계	347	100.0	100.0	

50% 미만: 55.9% 50% 이상: 44.1%

2) 가설 2: 자관 장서에 대한 이용자의 실제 만족도와 사서가 예상하는 이용자의 만족도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본 가설 검정을 위해서는 두 집단 평균의 동일성에 대한 검정을 실시하였다. 이것은 집단이 나누어져 있는 연속형 데이터에 대한 분석으로 분석의 결과는 두 집단의 평균에 차이가 '있다' 혹은 '없다' 는 것이다

위의 결과를 보면 가설 2인 "집단에 따라 장서 만족도에 대한 인식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 틀린 것이란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사서와 이용자들의 장서 만족도에 대한 인식의 차이는 없다고 할 수 있으므로 본 가설 2는 기각되었다. 이것은 이용자 및 사서의 인식도에 대한 빈도표를 보더라도 두 집단이 생각하는 장서 만족도는 50% 미만임을 의미하는 것으로 비록 가설은 기각되었으나, 오히려 사서나 이용자 모두가 장서의 부족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도서관으로서 더욱 더 적극적으로 망라적인 수집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3) 가설 3: 집단(전공 계열)별로 자관장서에 대한 만족도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본 가설을 검정하기 위해서는 분산분석을 하였다. 이것은 3집단 이상의 평균을 비교하기 위한 가설 검정 방법이며, 이 경우 사용되는 통계량은 F-통계량을 사용한다. 이 경우는 범주형 데이터를 집단으로 분류하고 연속형 데이터의 평균을 집단 별로 비교하여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는 지를 알아볼 수 있다. 이 분석에서 사용된 집단은 응답자의 소속 대학의 계열로서, 인문 계열(1), 사회 계열(2), 이공 계열(3), 예·체능 계열(4), 사범 계열(5)로 분류 하였는데, 사범 계열에는 인문 계열과 이공(자연) 계열이 혼합되어 있어서 다른 계열과 분리하여 구분하였다. 본 가설이 채택되는 경우, 도서관에서는 분야별 장서구성에 대한 수서정책 수립 시 반영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이다.

다음 <표 8>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전공분야에 따라 장서만족도는 신뢰수준 95%에서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표 7> 자관 장서에 대한 이용자의 만족도 및 사서의 예상에 대한 독립 표본 검정

	Levene의 등분산 검정		평균의 동일성에 대한 t-검정						
	F	유의확률	t	자유도	유의확률 (양쪽)	평균차	차이의 표준 오차	차이의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등 분산이 가정됨	3.967	.047	-.034	349	.973	-.009	.2634	-.527	.5090
등 분산이 가정 않음			-.054	6,653	.958	-.009	.1666	-.407	.3891

<표 8> 이용자의 전공 분야 별 장서만족도의 차이에 대한 분석

	제공합	자유도	평균제공	F	유의확률
집단-간	8.154	4	2.038	4.460	.002
집단-내	122.496	268	.457		
합 계	130.650	272			

바탕으로 세부적인 차이를 비교해 보기 위해 다중 비교를 실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표 9 참조).

분석의 결과를 보면, 사회 계열(2)과 이공 계열(3)은 통계적으로 만족도에 차이가 있다고 할 수는 없으며, 동일하게 인문 계열(1), 예·체능 계열(4), 사범 계열(5)의 전공분야 간 만족도도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통계적으로 사회 계열(2), 이공 계열(3)의 전공분야가 인문 계열(1), 예·체능 계열(4), 사범 계열(5) 보다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을 쉽게 알아보기 위해 계산한 만족도 점수를 전공 별로 비교해 보면, 인문 계열(39.40), 사회 계열(47.60), 이공 계열(53.67), 예·체능 계열(43.07), 사범

계열(37.50)이다. 이런 결과들을 보아 '집단(전공 계열)별로 자관 장서에 대한 만족도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는 가설 3은 채택되었다.

4) 가설 4: 집단(대학)별로 자관장서에 대한 만족도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본 가설의 검증에서는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가설은 대학별로 이용자의 만족도 차이를 확인하는 것으로 본 가설이 채택되는 경우, 해당 대학이 좀 더 적극적인 수서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 <표 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학 별로 장서 만족도는 신뢰수준 9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9> 전공 분야 별 장서만족도의 차이에 대한 다중비교 분석

전공 (I)	전공 (J)	평균차(I-J)	표준오차	유의확률	95% 신뢰구간	
					하한값	상한값
1	2	-.24634*	.11036	.026	-.4636	-.0291
	3	-.42794*	.11180	.000	-.6481	-.2078
	4	-.10985	.16115	.496	-.4271	.2074
	5	.05682	.19893	.775	-.3348	.4485
2	1	.24634*	.11036	.026	.0291	.4636
	3	-.18160	.10406	.082	-.3865	.0233
	4	.13649	.15588	.382	-.1704	.4434
	5	.30316	.19468	.121	-.0801	.6865
3	1	.42794*	.11180	.000	.2078	.6481
	2	.18160	.10406	.082	-.0233	.3865
	4	.31809*	.15690	.044	.0092	.6270
	5	.48476*	.19551	.014	.0998	.8697
4	1	.10985	.16115	.496	-.2074	.4271
	2	-.13649	.15588	.382	-.4434	.1704
	3	-.31809*	.15690	.044	-.6270	-.0092
	5	.16667	.22736	.464	-.2810	.6143
5	1	-.05682	.19893	.775	-.4485	.3348
	2	-.30316	.19468	.121	-.6865	.0801
	3	-.48476*	.19551	.014	-.8697	-.0998
	4	-.16667	.22736	.464	-.6143	.2810

* 0.05수준에서 평균 차가 큰 것, 종속변수 = 장서만족도

〈표 10〉 대학 별 장서 만족도의 차이에 대한 분산 분석

	제공합	자유도	평균제공	F	유의확률
집단-간	47.271	6	7.878	22.552	.000
집단-내	117.730	337	.349		
합계	165.001	343			

〈표 11〉 대학 별 장서만족도의 차이에 대한 다중비교 분석

(I)대학	(J)대학	평균차(I-J)	표준오차	유의확률	95% 신뢰구간	
					하한값	상한값
1	2	-.32783*	.12068	.007	-.5652	-.0905
	3	-1.20191*	.12008	.000	-1.4381	-.9657
	4	-.87191*	.12008	.000	-1.1081	-.6357
	5	-.96559*	.12068	.000	-1.2030	-.7282
	6	-.68498*	.12068	.000	-.9223	-.4476
	7	-.69191*	.12008	.000	-.9281	-.4557
2	1	.32783*	.12068	.007	.0905	.5652
	3	-.87408*	.11881	.000	-1.1078	-.6404
	4	-.54408*	.11881	.000	-.7778	-.3104
	5	-.63776*	.11941	.000	-.8726	-.4029
	6	-.35714*	.11941	.003	-.5920	-.1223
	7	-.36408*	.11881	.002	-.5978	-.1304
3	1	1.20191*	.12008	.000	.9657	1.4381
	2	.87408*	.11881	.000	.6404	1.1078
	4	.33000*	.11821	.006	.0975	.5625
	5	.23633*	.11881	.048	.0026	.4700
	6	.51694*	.11881	.000	.2832	.7506
	7	.51000*	.11821	.000	.2775	.7425
4	1	.87191*	.12008	.000	.6357	1.1081
	2	.54408*	.11881	.000	.3104	.7778
	3	-.33000*	.11821	.006	-.5625	-.0975
	5	-.09367	.11881	.431	-.3274	.1400
	6	.18694	.11881	.117	-.0468	.4206
	7	.18000	.11821	.129	-.0525	.4125
5	1	.96559*	.12068	.000	.7282	1.2030
	2	.63776*	.11941	.000	.4029	.8726
	3	-.23633*	.11881	.048	-.4700	-.0026
	4	.09367*	.11881	.431	-.1400	.3274
	6	.28061*	.11941	.019	.0457	.5155
	7	.27367*	.11881	.022	.0400	.5074
6	1	.68498*	.12068	.000	.4476	.9223
	2	.35714*	.11941	.003	.1223	.5920
	3	-.51694*	.11881	.000	-.7506	-.2832
	4	-.18694	.11881	.117	-.4206	.0468
	5	-.28061*	.11941	.019	-.5155	-.0457
	7	-.00694	.11881	.022	-.2406	.2268
7	1	.69191*	.12008	.000	.4557	.9281
	2	.36408*	.11881	.002	.1304	.5978
	3	-.51000*	.11821	.000	-.7425	-.2775
	4	-.18000	.11821	.129	-.4125	.0525
	5	-.27367*	.11881	.022	-.5074	-.0400
	6	.00694	.11881	.953	-.2268	.2406

* .05 수준에서 평균차가 큰 것, 종속변수 = 장서 만족도

이러한 분석을 통해 볼 때, 만족도가 높은 순으로 정렬하면 가장 높은 대학은 3번(64.00), 그 다음은 5번(56.13), 다음은 4번(53.00), 다음은 7번(47.00), 다음은 6번(46.77), 다음은 2번(34.87), 마지막으로 1번(23.93)으로 가장 낮은 만족도를 보였다. 그러나 4번, 7번, 6번 대학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표 12 참조).

따라서, '집단(대학) 별로 자관 장서에 대한 만족도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라는 가설은 실제 분석 결과와도 일치하므로 가설 4는 채택되었다.

〈표 12〉 대학별 장서 만족도

대학 1	23.93
대학 2	34.87
대학 3	64.00
대학 4	53.00
대학 5	56.13
대학 6	46.77
대학 7	47.00

5) 가설 5: 학년에 따라 도서관 상호이용 협력활동의 인지도가 차이가 있을 것이다.

본 가설은 매년 이용자가 상급학년으로 진급함에 따라 도서관의 여러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도서관 상호이용 협력활동도 비례해서 알고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자 함이었다. 이것은 이용자가 도서관서비스에 대해 상급학년이 되면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것 보다

는 저학년 때부터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를 통해서 이용률을 높이도록 하는 적극적 봉사의 필요성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본 가설 검정은 범주형 데이터 간의 교차분석을 통한 독립성 검정(차이 확인)을 하였다.

〈표 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유의확률이 0.041로 신뢰수준 95%에서 학년에 따라 상호이용 협력활동의 인식도에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학년에 따라 도서관 상호이용 협력활동의 인지도가 차이가 있을 것이다'라는 가설 5는 채택되었다. 다만, 〈표 14〉에서 보는 바와 같이 1학년으로부터 3학년까지의 인지도는 점차적인 증가를 보인 반면, 4학년은 오히려 인지도의 감소를 보임으로서 표본의 분포에 문제점이 있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 된다.

6) 가설 6: 학년에 따른 도서관 상호이용 협력활동의 이용경험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본 가설은 도서관 서비스에 대해 알고 있는 만큼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사실을 확인하고자 의도된 질문을 분석하기 위한 것이었다. 본 가설도 범주형 데이터 간의 교차분석을 통한 독립성 검정(차이 확인)을 하였다.

〈표 15〉을 보면 알 수 있듯이 학년에 따라 도서관 상호이용 협력활동의 이용경험에는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가설 6은 기각되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볼 때, 가설 5에서는 학년에 따라 인지도에 유의한

〈표 13〉 학년에 따른 인지도 차이에 대한 카이제곱 검정

	값	자유도	점근 유의확률(양측검정)
Pearson 카이제곱	11.332(a)	3	.010
선형 대 선형결합우도비	3.19911.750	13	.074.008

〈표 14〉 학년에 따른 도서관 상호이용 협력활동 인지도의 교차 표

학 년	구 분	협력활동 인식 여부		전 체
		안 다	모른다	
1학년	빈도	11	75	86
	기대빈도	20.4	65.6	86.0
	학년의 %	12.8%	87.2%	100.0%
2학년	빈도	22	61	83
	기대빈도	19.7	63.3	83.0
	학년의 %	26.5%	73.5%	100.0%
3학년	빈도	29	56	85
	기대빈도	20.2	64.8	85.0
	학년의 %	34.1%	65.9%	100.0%
4학년	빈도	14	52	66
	기대빈도	15.7	50.3	66.0
	학년의 %	21.2%	78.8%	100.0%
전체	빈도	76	244	320
	기대빈도	76.0	244.0	320.0
	학년의 %	23.8%	76.3%	100.0%

〈표 15〉 상호이용 협력활동에 대한 경험의 차이에 대한 카이제곱 검정

	값	자유도	점근 유의확률(양측검정)
Pearson 카이제곱	2.755(a)	3	.431
선형 대 선형결합 우도비	.4782856	13	.490414

차이가 있었던 것에 반해, 본 가설의 기각으로 이용자는 도서관서비스를 알고는 있어도 비례적으로 이용하지는 않는 것으로 해석 할 수 있겠다.

7) 가설 7: 도서관 상호이용 협력활동에 대한 이용자의 인지도와 사서가 보는 예상 인지도 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본 가설의 의도는, 사서는 실제 이용자가 도서관서비스에 대해 잘 알고 있을 것으로 알고 홍보나 안내에 소홀히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가정 하에 조사해 봄으로써, 사실로 확인이 되면 사서의 생각과 현실의 차이를 바로 알고 도서관 서비스 개선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야 하는

근거를 제시하기 위한 것이었다. 본 가설 검정에서도 위의 가설검정과 마찬가지로 교차분석을 통한 독립성 검정(차이 확인)을 하였다.

위의 결과에서 Pearson 카이제곱 통계량의 유의확률을 보면 0.005로 신뢰 수준 95%에서 두 집단 간에는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위의 교차표를 보면 사서들 중에서 이용자가 도서관 상호이용 협력활동을 알고 있을 것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전체 응답자 중 71.4%였고, 이용자 중 도서관 상호이용 협력활동에 대해 모르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이 전체 응답자 중 75.3% 이었다. 그러므로 사서들은 이 프로그램

〈표 16〉 도서관 상호이용 협력활동에 대한 이용자의 인지도와 사서의 예상 인지도 차이의 카이제곱 검정

	값	자유도	점근 유의확률 (양측검정)	정확한 유의확률 (양측검정)	정확한 유의확률 (단측검정)
Pearson 카이제곱	7.854(b)	1	.005		
연속수정(a)	5.594	1	.018		
우도비	6.577	1	.010		
Fisher의 정확한 검정				.014	.014
선형 대 선형결합	7.831	1	.005		
유효 케이스 수	351				

〈표 17〉 집단(사서, 이용자)의 도서관 상호이용 협력활동 인지도 교차표

집 단	빈 도	인 지 도		전 체
		안 다	모 른 다	
사 서	빈도	5	2	7
	기대빈도	1.8	5.2	7.0
	집단의 %	71.4%	28.6%	100.0%
이용자	빈도	85	259	344
	기대빈도	88.2	255.8	344.0
	집단의 %	24.7%	75.3%	100.0%
전 체	빈도	90	261	351
	기대빈도	90.0	261.0	351.0
	집단의 %	25.6%	74.4%	100.0%

에 대해 이용자들이 많이 알고 있을 것으로 추측하지만, 실제 이용자들 대부분은 이 프로그램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도서관 상호이용 협력활동에 대한 이용자의 인지도와 사서가 보는 예상 인지도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라는 가설 7은 채택되었다.

3.3.2 이용자용 질문 분석

1) 인구 배경적 특성

인구 배경적 특성에서는 응답자의 전공분야와 학년을 조사하였다. 이것은 앞에서 가설검정을 할 때, 인구 배경적 특성에 따른 차이를 확인하기 위한 항목이었다. 〈표 18〉을 보면 상

대적으로 예·체능 및 사범 계열이 다른 전공분야보다 적은 것을 알 수 있고, 가설검정에서 볼 수 있듯이 장서 만족도에 있어서도 인문 계열, 예·체능 계열, 사범 계열이 낮게 나타났다.

응답자의 학년 분포에서는 1, 2, 3학년이 거의 동수이며, 4학년이 약 5%정도 적은데, 표본을 무작위 추출방법으로 추출하였음에도 고르게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2) 장서 만족도 및 자료수집 행위

장서 만족도는 가설검정의 빈도분석을 통해 제시 한 바와 같이, 전체이용자 중에서 52.3%의 이용자가 자관의 장서량이 50% 미만 이라고 응

〈표 18〉 응답자의 전공분야 분포

전공 분야	빈 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1. 인문 계열	66	19.0	24.1	24.1
2. 사회 계열	87	25.0	31.8	55.8
3. 이공 계열	83	23.9	30.3	86.1
4. 예·체능 계열	24	6.9	8.8	94.9
5. 사범 계열	14	4.0	5.1	100.0
합 계	274	78.7	100.0	
시스템 결측 값	73	21.3		
합 계	347	100.0		

〈표 19〉 응답자의 학년 분포

학 년	빈 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1학년	86	24.7	26.6	26.6
2학년	84	24.1	26.0	52.6
3학년	86	24.7	26.6	79.3
4학년	67	19.3	20.7	100.0
합 계	323	92.8	100.0	
시스템 결측 값	24	7.2		
합 계	347	100.0		

답 하였다(표 1 참조). 다음의 〈표 20〉과 같이 자료 별로 보면, 전공도서는 53.3%의 이용자, 전공분야 학술잡지는 65.6%의 이용자, 참고도서는 55.9%의 이용자가 자관의 장서량이 50% 미만이라고 응답했다. 다만 교양도서는 오히려 이용자의 65.7%가 자관의 장서량이 50%이상 소장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응답했다.

이러한 응답 결과는 학습과 관련된 자료는

반드시 필요할 때 없었던 경험 때문이라고 판단되며, 교양도서는 소장한 장서의 범위 내에서 이용하는 경향 때문일 것이라 추정할 수 있으리라 사료 된다.

또한 원하는 자료가 도서관에 없었던 경험을 한 경우가 전체 이용자의 59.4%나 되었다(표 21 참조). 이런 경우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취한 행동으로 수집을 포기한 이용자가 전체의

〈표 20〉 자관에 소장되어 있는 자료에 대한 만족도

단위(유효 %)

소장 정도	전공도서	전공학술잡지	교양도서	참고도서
25% 미만	21.3	28.9	10.8	16.7
25-50% 미만	32.0	36.7	23.5	39.2
50-75%미만	35.7	26.6	45.6	34.6
70% 이상	11.0	7.8	20.1	9.5
합 계	100.0	100.0	100.0	100.0

〈표 21〉 이용을 원하는 자료가 도서관에 없었던 경우

비 소장 경우	빈 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있었음	202	58.0	59.4	59.4
없었음	138	39.7	40.6	100.0
합 계	340	97.7	100.0	
시스템 결측 값	7	2.3		
합 계	347	100.0		

〈표 22〉 원하는 자료가 도서관에 없었던 경우의 수집 활동

수집 활동	빈 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사서에게 요청	51	14.7	24.4	24.4
타 대학 방문 이용	21	6.0	10.0	34.4
타 대학 홈페이지	21	6.0	10.0	44.5
확인 후 방문 이용	90	25.9	43.1	87.6
수집을 포기했음	26	7.5	12.4	100.0
기타	26	7.5	12.4	100.0
합계	209	60.1	100.0	
시스템 결측 값	138	39.9		
합 계	347	100.0		

43.1%나 되며, 사서에게 요청한 경우도 24.4%나 되었고, 타 대학을 방문하여 해결한 경우가 20% 정도 이었다(표 22 참조).

3) 도서관 상호이용 협력활동에 대한 인지도 및 인지 경로

타 도서관을 상호 이용하기 위한 도서관 서비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에 대한 인지도 조사는 가설 7에서도 검증된 바와 같이, 응답자의 75.3%(표 23 참조)나 되는 이용자가

모르고 있다고 응답하여, 도서관 서비스를 제대로 이용하고 있지 못함을 알 수 있었다.

타 도서관을 상호 이용하기 위한 도서관 서비스에 대해서 알고 있는 이용자들의 인지 경로 조사(표 24 참조)에서는 사서, 친구, 도서관 홈페이지, 도서관 이용 안내자료 등의 4가지 방법을 통해 비슷한 비율(각각 약 22%씩)로 알게 된 것으로 응답 했는데, 이는 도서관 서비스에 대한 소극적 안내의 결과로 판단된다. 이 조사에서 인지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한 이용자 5명이 인지

〈표 23〉 대전 시내 소재 대학의 도서관 상호이용 협력활동의 인지도

인지 여부	빈 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알고 있었음	85	24.4	24.7	24.7
모르고 있었음	259	74.4	75.3	100.0
합 계	344	98.9	100.0	
시스템 결측 값	3	1.1		
합 계	347	100.0		

〈표 24〉 도서관 상호이용 협력활동에 대한 인지 경로

인지 경로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사서를 통해서	20	5.7	22.2	22.2
친구를 통해서	20	5.7	22.2	44.4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서	19	5.5	21.1	65.6
도서관 이용안내 자료를 통해서	20	5.7	22.2	87.8
대학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통해서	7	2.0	7.8	95.6
기타	4	1.1	4.4	100.0
합계	90	25.9	100.0	
시스템 결측 값	257	74.1		
합계	347	100.0		

경로에 응답한 이유는 알 수 없으나, 결측 처리된 무 응답자가 포함된 것을 알 수 있었다.

4) 도서관 상호이용 협력활동의 홍보에 관한 질문 분석

이 질문은 이 서비스에 대해 이용자들이 잘 모를 것이라는 가정 하에 조사한 것이었으며, 가설검정과 위 〈표 2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 이용자의 약 75%가 모르고 있었음이 확인된 바 있다. 따라서 이용자들이 잘 모르고 있는 이유가 홍보 또는 안내 부족인지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였다. 〈표 2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 응답자의 10.9%만이 도서관에서의 홍보가 충분하다고 응답해서, 이용자들은 도서관이 수동적으로 서비스하는 것으로 인지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향후 홍보 및 안내가 더 필요한 경우, 어떤 방법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서 〈표 26〉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재의 방법을 선호함으로써, 새로운 방법보다는 현행 홍보 및 안내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하기를 바라며, 다만, 인지 경로에서는 낮게 응답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통한 안내가 효과적일 것임을 알 수 있다.

5) 도서관 상호이용 협력활동 이용 경험에 대한 분석

앞에서 이 서비스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이용 경험을 조사하고자 하였으나 '경험 있음'이 57명, '경험 없음'이 277명, '무응답'이 1명으로 대부분의 응답자가 응답하여 정확한 조사가 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표

〈표 25〉 도서관 홍보에 대한 만족도

만족도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홍보가 매우 충분	5	1.4	1.4	1.4
홍보가 충분	33	9.5	9.5	11.0
홍보가 보통	104	30.0	30.0	40.9
홍보가 불충분	165	47.6	47.6	88.5
홍보가 매우 불충분	40	11.5	11.5	100.0
합계	347	100.0	100.0	

〈표 26〉 도서관 상호이용 협력활동에 대한 홍보·안내의 효과적 방법에 대한 의견

홍보·안내 방법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서	96	27.6	39.3	39.3
도서관 이용안내 자료를 통해서	66	19.0	27.0	66.4
대학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통해서	49	14.1	20.1	86.5
안내메일을 통해서	24	6.9	9.8	96.3
기타	9	2.6	3.7	100.0
합계	244	70.1	100.0	
시스템에 걸쳐	103	29.9		
합계	347	100.0		

23)을 참조하여 분석할 때 인지하고 있는 이용자 85명중 이 질문에서 이용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이용자(57명)의 비율(57/85)로 보면 전체 인지자의 67%가 이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도서관의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면 이용률이 높아질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이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경우 이용한 서비스의 종류를 묻는 질문에서 응답 선택지로 '원문 복사', '상호대차(자료대출)', '타 도서관 방문 열람' 및 '기타'를 예로 제시했으나, 응답자 전원이 응답 선택지 중에서 '원문복사'를 이용했다고 응답했다. 이것은 가설 1에서 검증된 바와 같이 이용자들이 교양도서를 제외한 모든 자료의 소장 부족을 지적한 것을 고려한다면, 다양한 이용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도서관 상호이용 절차에 대한 조사에서는 응답자(89명) 중 '매우 만족'이 13.5%, '만족'이 30.3%, '보통'이 39.3%, '불만족'이 14.6%, '매우 불만족'이 2.2%로, 전체 응답자 중에서 만족하는 이용자가 43.5%, 이므로 보통이라고 응답한 이용자를 포함하면 82.5%의 응답자가 이용 절차에는 불만이 없음을 알 수 있다.

도서관 상호이용 협력활동에 의한 이용과 개인적으로 다른 도서관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경우, 어느 대학을 주로 이용하는지에 대한 질문에서는 80명이 응답했는데, 대전지역의 8개 4년제 대학 중 가장 많이 이용한 대학은 충남대(23.5%)이고, 가장 적게 이용한 대학(5%)은 과기대와 한밭대를 동일하게 이용하였다.

그 대학들을 이용한 이유로서는, 대부분이 자료가 많아서였고(35%) 다음으로 집과 가까워서(17%)의 이유였다. 기타 사서가 권해서(11.3%), 서비스가 신속해서(7.5%), 사서가 자의적으로 신청해줘서(7.5%), 사서가 친절해서(3.8%) 및 기타(5%) 이었다.

더 제공받고 싶은 서비스를 묻는 질문에서는 참고질문의 해답(45.3%), 전자 자료를 이용하기 위한 ID의 공동 이용(45%), 기타(9.8%)였으며, 기타에서는 주로 자유로운 타 대학 이용과 관련된 내용 이었다.

마지막으로, 개선점에 대한 의견으로는 적극적인 홍보(안내·교육 포함)를 요청한 응답자가 35명(약 10%)으로 가장 많았으며, 부분적으로는 도서배달 서비스, 절차 간소화, 대출기간 연장, 대출 책 수 확대 등을 요청하였다.

3.2.3 사서용 질문 분석

사서용 질문지는 표본으로 선정된 조사 대상

대학이 7개교이며, 담당 사서의 수가 각 대학 별 1명(2개 대학은 2명) 씩으로 전체 9명(응답자는 각 대학별로 1명씩 총 7명)이므로 통계적 유의성 분석은 불가능 하므로 빈도에 의한 기술 통계를 하고자 한다.

1) 인구 배경적 특성과 조직

도서관 상호이용 협력활동을 담당하는 사서의 평균 근무 월수는 31개월이며, 최대 72개월(6년), 다음이 38개월, 최소 근무 경력자는 15개월인데, 일반적으로 2년 내외의 경력을 갖고 있었으며, 2개 대학교를 제외한 다른 대학 도서관은 모두 정규 사서들이 담당하였다.

업무의 소속은 독립부서에서 수행한 경우가 2개교이며 다른 대학들은 모두 하위조직의 부속 업무로 수행하였다.

2) 자관의 소장 장서에 대해 사서가 예상하는 이용자의 만족도

이 질문은 가설 1에서 검증한 바와 같이 요인분석을 통한 이용자들의 전체 장서 만족도를 볼 때, 전체 응답자 중 52.3%가 자관에는 절반 이하의 장서량을 소장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아래의 <표 28>에서 보듯이 사서들은 교양도서에 대한 이용자의 실제 만족도(유일하게 50% 이상의 만족도를 보인 이용자가 65.7%이었음, 표 20 참조)와 동일하게 예상했고, 전공분야 학술잡지(71.4%의 사서가 이용자의 예상만족도 50% 미만이라 응답했음) 및 참고도서(71.5%의 사서가 이용자의 예상만족도 50% 미만이라 응답했음)에서도 동일하게 예상했다. 그러나 전공도서에서는 이용자의 만족도와는 반대로(이용자는 53.3%가 자관장서

<표 27> 업무 담당자의 인구 배경적 특성

대학	경력(월)	담당 사서(직원수)		조직: 상위 부서(업무담당부서)
		정규 직급	계약, 조교	
1	21	사서(1)	조교(1)	전자정보데스크(부속 업무)
2	38	기술6급(1)		열람과(정기간행물실 부속업무)
3	18	사서주사(1) 사서(1)		전자정보실(부속업무)
4	26	대리(1)		연속간행물(부속업무)
5	72	기성회직(1)		문헌정보팀(부속업무)
6	15	직원(1)		참고자료실
7	24		계약직(1)	대출실

<표 28> 이용자 만족도에 대한 사서의 예상 만족도

()는 유효%

예상 만족도	전공도서	전공분야 학술잡지	교양도서	참고도서
25% 미만	0	1(14.3)	0	2(28.6)
25-50% 미만	3(42.9)	4(57.1)	3(42.9)	3(42.9)
50-75% 미만	4(57.1)	1(14.3)	3(42.9)	2(28.6)
75% 이상	0	1(14.3)	1(14.3)	0

에 대해 50% 미만 소장하고 있다고 했음, 표 20 참조) 예상해서 이용자와 사서 간에 약간의 인식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사서 역시 이용자와 마찬가지로 자관의 장서량이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상호이용 협력활동 이용 실적

〈표 2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지역과 전국의 통계를 구분 하여 작성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은 도서관 운영에서 통계유지가 잘 되고 있지 않음을 반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응답 내용을 볼 때, 각 대학에서는 주로 문헌복사를 위주로 서비스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를 가장 활발하게 제공한 대학으로는 1번과 3번 대학이었다.

4) 도서관 상호이용 협력활동의 홍보에 관한 질문

이 질문에서는 이용자가 도서관 상호이용 협력활동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고 가정하고(이용자 빈도 분석에서는 75.3%의 이용자가 모르고 있는 것으로 확인 됨〈표 23 참조〉), 이에 대해 사서는 어떻게 예상 하는지를 확인하려는

것이였다. 즉, 사서는 이용자가 이 활동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지에 대한 5점 척도의 질문에, ‘보통’에 5개 대학, ‘잘 모르고 있을 것’에 2개 대학이 응답함으로써, 이용자 자신보다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따라서 사서는 이용자가 사서 본인의 생각보다는 도서관 서비스에 대해 잘 알고 있지 못함을 인식하고, 좀 더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 및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학생들이 잘 모르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묻는 질문에 응답 선택지로 ‘홍보 부족’, ‘학생들 관심 부족’, ‘이용 필요성이 없을 것’, ‘기타’로 제시 했는데, 7개 대학 중 4개 대학만이 응답하였다. 응답 중에서 3개 대학이 ‘홍보 부족’으로 인정하였음을 볼 수 있고, ‘학생들의 관심 부족’을 지적인 대학도 있었다.

각 대학에서 홍보하고 있는 방법을 묻는 질문에 〈표 30〉과 같이 다양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응답 했다. 이 응답 내용을 보면 4번, 5번, 7번 대학이 홍보 활동에 소극적임을 알 수 있다.

또한, 각 대학의 위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용자에 대한 홍보가 충분하지를 묻는 질문에는 7개 대학 모두가 불충분하다고 응답 했

〈표 29〉 각 대학별 상호대차(문헌 복사 의뢰) 요청 및 제공 건수

대학	문헌복사		자료대출		열람이용		참고질의	
	요 청	제 공	요 청	제 공	요 청	제 공	요 청	제 공
1	전국1132	전국 588	95	87	195			
2	180	346	9	42				
3	전국3549	전국3725	161	149				
4	전국264	전국254	무응답	무응답				
5	34	4	7	4	228	30		
6	23	3	전국79	전국31			10	
7	무응답	무응답	170	170				

〈표 30〉 각 대학의 홍보 방법

홍보 방법	대학1	대학2	대학3	대학4	대학5	대학6	대학7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통해서		○	○	○		○	○
도서관 이용안내 자료를 통해서	○	○	○			○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서	○	○	○			○	
도서관 내 안내 게시판을 통해서							
질문할 때 개별적으로	○		○			○	○
기타(이용자 교육시)	○		○		○		

으며, 그 대안을 묻는 개방형 질문에서는, 3개 대학이 응답(복수 응답) 했다. 그 내용으로는, '이용자 교육의 의무화', '학점 부여방식의 교육(교양과목 등)', '이용자 교육 이수 후 도서관 이용자격 부여', '홈페이지에 홍보 관련 배너 마련 및 게시판 활용', '이용자 수준별 맞춤 교육' 등을 제시 했다.

5) 도서관 상호이용 협력활동의 필요성 및 개선점에 관한 질문

향후 지속적으로 도서관 상호이용 협력활동이 필요한지에 대해서와 협력활동의 기능 개선에 대해서는 7개 대학 모두가 필요성이 있다고 응답 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점을 개선해야 하는가에 대한 개방형 질문을 한 결과, 4개 대학이 '이용제도나 절차의 개선'을 제시했고 3개 대학은 '협력활동의 봉사영역의 확대'를 제시 했다. 구체적인 응답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즉,

첫째, 제도 및 절차의 개선으로, 전국적 망의 이용에 있어서 무료로 이용하거나 또는 실비로 제공할 것, 자료 우송 시간을 줄일 것, 절차의 통일을 기할 것 등을 제시했다.

둘째, 봉사영역의 확대에 있어서는, 대출 기간의 연장, 이용 대상 자료의 확대, 학문분야 별 분담수서의 제도화, 봉사제공 실적에 따른 협

력대학 간 인센티브제 운영 등을 제시 했다.

또한 도서관 상호이용 협력활동에서 전국적 네트워크 시스템인 KERIS, KESLI, KORSA, NDSL 등이 절대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

4. 결 론

본 연구는 대학도서관의 다양한 이용자 봉사 활동 중 도서관 상호이용 협력활동에 대해 조사 분석 하였다. 그 내용으로, 협력활동의 운영 현황과 이용자의 자관 장서에 대한 만족도 및 도서관 상호이용 협력활동의 이용 현황, 사서의 인식 및 봉사 내용 등을 조사하여 이용자에게 실제로 필요한 서비스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대안 및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 문제 해결 방법으로 이용자와 사서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조사된 응답에 대해 통계적 유의성 분석과 기술통계를 통한 분석으로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첫째, 본 연구에서 제시된 가설을 검증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이용자와 사서의 장서 만족도에 관한 가설에서 제시된 세부가설에서는,

- 가설 1의 '자관 장서에 대한 이용자들의 만

족도가 낮을 것(50% 미만)이다'는 채택되었다.

빈도분석 결과를 보아도 만족도가 50% 미만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전체 응답자 중 52.3% 이었고, 일 표본 T-검정 결과를 보면 유의확률 0.0081로 귀무가설인 '장서 만족도 평균은 50점이다.'를 기각하고 대립가설인 '장서 만족도 평균은 50점 미만이다.'를 채택할 수 있게 되어서 이 가설은 채택되었다.

- 가설 2의 '자관 장서에 대한 이용자의 실제 만족도와 사서가 예상하는 이용자의 만족도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는 기각되었다. 즉, 두 집단 평균의 동일성에 대한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으나, 이용자와 사서 모두 동일하게 장서의 부족을 인식하고 있었다. 이것은 가설이 기각되기는 하였으나 도서관으로서는 더욱 더 적극적으로 망라적인 수집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2. 이용자의 집단 별로 자관 장서에 대한 만족도의 차이에 대한 가설로서

- 가설 3의 '집단(전공계열)별로 자관장서에 대한 만족도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는 채택되었다. 본 가설을 검정하기 위해서는 분산분석을 하였으며, 통계적으로 사회 계열(2), 이공 계열(3)의 전공분야 만족도가 인문 계열(1), 예·체능 계열(4), 사범 계열(5) 보다 높은 것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 하였다.
- 가설 4의 '집단(대학) 별로 자관 장서에 대한 만족도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는 채택

되었다. 본 가설에서는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는데, 대학 별로 만족도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7개 대학 중 3개 대학의 만족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3. 도서관 상호이용 협력활동에 대한 인지도 및 이용경험에 관한 가설의 세부가설에서 보면,

- 가설 5의 '학년에 따라 도서관 상호이용 협력활동의 인지도가 차이가 있을 것이다'는 범주형 데이터 간의 교차분석을 통한 독립성 검정(차이 확인)을 하였다. 유의 확률이 0.041로 신뢰 수준 95%에서 학년에 따라 상호이용 협력 프로그램의 인식도에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음을 확인하여 채택되었다
- 가설 6의 '학년에 따른 도서관 상호이용 협력활동의 이용경험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는 범주형 데이터 간의 교차분석을 통한 독립성 검정(차이 확인)을 하였다. 검증 결과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이 가설 6은 기각 되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볼 때, 가설 5에서는 학년에 따라 인지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던 것에 반해, 본 가설의 기각으로 이용자는 도서관서비스를 알고는 있어도 알고 있는 것에 비례해서 이용하지는 않는 것으로 해석 할 수 있겠다.
- 가설 7의 '도서관 상호이용 협력활동에 대한 이용자의 인지도와 사서가 보는 예상 인지도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는 채택되었다. 교차분석을 통한 독립성 검정(차이 확인)을 통해 확인 하였으며, 사서들 중에

서 이용자가 도서관 상호이용 협력활동을 알고 있을 것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전체 응답자 중 71.4%였고, 이용자 중 도서관 상호이용 협력활동에 대해 모르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이 전체 응답자 중 75.3%로서 서로 상반된 차이를 보였다.

둘째, 사서와 이용자의 빈도분석을 통한 기술통계에서는 도서관 상호이용 협력활동의 인지도와 이용경험, 홍보의 내용과 효과성, 필요성 등과, 도서관에서의 상호이용 협력활동의 봉사 실적 등을 분석하여 문제점 등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제시 하였다.

파악된 문제점으로는 장서의 부족, 협력활동에 대한 홍보의 미흡성과, 사서와 이용자의 협

력활동에 대한 인식의 차이 등을 들 수 있겠다.

개선점에 대한 의견으로 이용자 입장에서는 적극적인 홍보(안내·교육 포함), 도서배달 서비스 개선, 절차 간소화, 대출기간 연장, 대출책 수 확대 등을 요청 하였다.

사서가 제시한 개선점으로는 제도 및 절차의 개선, 봉사영역의 확대, 전국적 네트워크 시스템의 적극적 활용 등을 들 수 있다.

따라서 조사된 이용자 및 사서의 제안 내용을 적극적으로 도서관 운영에 반영하고, 무엇보다도 가설검정에서 확인 된 바와 같이 사서는 이용자와의 인식 차이를 바로 알고, 이용자 위주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봉사를 제공하려는 의지가 필요하다 하겠다.

참 고 문 헌

- 국립중앙도서관. 2005. 『(2005년도)도서관협력망 운영실태 자료집: 공공도서관』. 서울: 국립중앙도서관
- 김진용. 1976. 『대학도서관 봉사를 위한 상호대차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창근. 1994. 『도서관상호협력활동의 효율을 결정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배순자. 1983. 국제도서관 상호대차에 관한 고찰. 『정보관리연구』, 16(1): 18-27.
- 이경민. 1997. 『대학도서관 상호대차의 활성화 방안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이두영. 1985. 『도서관망의 구조와 효율성측정에 관한 연구』. 연세대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이두영. 1987. 『圖書館네트워크 構造論』. 서울: 구미무역.
- 정낙춘. 1972. 『대학도서관의 상호 협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수현. 1991. 외국학술잡지 종합목록 발간에 따른 상호협력 대책-문헌정보검색과 문헌 복사 제공을 중심으로. 『국립대학도서관보』, 9: 45-50.
- 최홍식. 1994. 『의학도서관을 위한 상호대차 시

- 스텝의 설계 및 구현』.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한국사립대학교 도서관협의회. 2000. 대학도서관 상호협력 네트워크 구축현황 조사 및 분석.
- 홍기선. 1995. 『의학잡지 상호대차 업무개선을 위한 연구』. 상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James G. Williams and Roger Flynn. 1979. "Network Technology: Functions of Existing Networks" in *The Structure and Governance of Library Networks*. Ed. by Allen Kent and Thomas J. Galvin. New York: Marcel Dekker.: 58-59.
- Ruth F. Patrick. 1972. *Guidelines for Library Cooperation: Development of Academic Library Consortia*. Santa Monica: System Development Cooperation.: 71.
- 과학기술정보관리협의회.
〈<http://www.stima.or.kr/>〉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http://www.riss4u.net/index.jsp>〉
- 한국의학도서관협의회. 〈<http://kmla.or.kr/>〉